



○2천여 인천불교산악인연합회원들이 12일 강화전등사에서 열린 연합회 발대식에서 합창 발원을 하고 있다.

인천불교산악인연합회 12일 창립

40여 사찰 2천여 산악회원 참석

1만회원 확보 환경활동 등 전개

지역 단위로는 최대 규모의 산악인불자회가 창립됐다. 인천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위원장 계성, 이하 연합회)는 10월 12일 강화 전등사 앞마당에서 인천 지역 40여 사찰 2천여 산악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회 결성은 침체된 인천불교 활성화와 지역 불자 역할을 결집하는데 기록적용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전등사 주지 계성 스님은 "산악인연합회 출범은 모래알처럼 흩어진 불자들을 한데 묶

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인천 지역에 새로운 불교바람을 일으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전대중 사회부장 무원 스님(황룡사 주지)도 "우리 불자들에게 인천불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대승불교, 보살불교, 복지불교 실천에 앞장서는 산악인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병조 인천불교산악인연합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실천이 없는 불교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니다. 이제는 인천불자들이 직접 나서서 불교의 최고 가르침을 펴야 한다"며 "앞으로 황폐화된 산을 보호하고 불교문화를 지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우선 첫 행사로 '산사랑' 환경보호 캠페인을 오는 11월부터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연말까지 1만 명 회원 확보를 목표로 인천 지역 400개 사찰에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 전등사=김철우 기자



힘 모으면 수확의 기쁨도 두배
봉사사 가을 벼베기 운력

10월 13일, 가을비가 그쳐서 봉사사(주지 철안) 사부대중들의 일손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절 앞의 논에

누렇게 익은 벼를 베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콤바인을 불러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대중들이 힘을 모아 벼베기를 하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이다. 벼베기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벼가 잘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운력에 동참했다. 남양주=고영배 기자

전불천탑 운주사 축제한마당

전시·공연·체험·학술행사 등 다채

전불천탑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 일대에서 사찰과 지역민이 하나되는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운주사와 화순군, 도암면 변영회 등으로 구성된 운주축제추진위원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새로운 시대의 발견-잃어버린 공동체를 찾아서'를 주제로 불교문화와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2003 운주축제'를 개최한다. 삼보일배로 운주사 경내 108m를 도는 '운주사 삼보일배'와 '와불 세우기'를 메인 상설행사로 열리는 운주축제는 전시, 공연, 체험, 학술, 관광 등 분야별 37가지 단위 행사로 구성된다. 특히 운주사 옛 모습을 담은 사진전(10월31일~11월2일)과 21세기 미륵이야기 설치미술전(10월31일~11월2일), 운주사 조각 복원(10월31일~11월2일) 등 불교문화 행사와 국악 한마당(11월2일), 도암 도장 발노래(11월2일), 마당극 양반놀이(11월1일), 한천농악 시연(11월1일) 등 지역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주민과 운주사가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난다. 학술 행사는 11월 1일 오전 10시 '21세기에 바라본 운주사와 미륵'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며, 민등불사, 소망기 달기, 점토·판화 전통천탑 만들기, 사찰음식 시연, 디카콘테스트 '내가 만난 부처' 등의 다양한 체험마당도 준비된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불연 이기영 박사 추모비 제막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요 그렇지 않은 것이 크게 그러하다' (추모탑 비문 내용 중) 재가불자 지도자였던 불연 이기영 박사 7주기 기념 법회 및 추모비 제막식이 11월 9일 오전 11시 곤지암 유마정사에서 열린다. 이기영 박사는 1922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나 벨기에 루뱅대학에서 불교학 박사를 받았다. 1960년 귀국한 후 동국대학교에 인도철학과를 창설하고, 원효상사 등의 명저를 저술하는 등 한국 불교학을 현대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재가불교 육성과 보살정신의 생활화에 힘쓴 실천적 종교인이다. 박사는 1996년 11월 별세했다. 문의:02-3411-6167 남동우기자

원주 구룡사 대웅전 원형복원

최근 화재로 소실된 원주 구룡사 대웅전이 원형 복원된다. 구룡사주지 원행은 10월 24일 오전 11시 대웅전 원형복원 신축기공대법회를 개최한다. 구룡사 대웅전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사업비 15억원(국비 7억, 지방비 7억, 자부담 1억)이 소요되며, 2004년 4월까지 복원된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인 구룡사 대웅전은 보관 중인 실측설계도에 따라 정면 3칸, 측면 2칸, 외3출목 내3출목 약 28.6평 다포양식으로 건립된다. 전체 구조를 11단위까지 측정한 수심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룡사 대웅전 실측설계도는 건축양식은 물론 구조와 재료의 크기와 질, 색상, 단청 모양, 집기류 배치도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원행스님은 "대웅전을 원형복원해 국민의 심신수련과 국립공원 이용객의 참배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기자



"희망찾은 절, 봉사로 회향"

오산 선불사 신장호 신도회장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 위치한 선불사주지 대운, 본원종 중앙종회의장은 쌍두마차가 이끌고 있다. 주지 스님과 신장호 신도회장(58, 본원종 전국신도회장)이 그들이다. 신 회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등산을 한다. 등산 후 매일 절을 찾는다. 바쁜데 절 일주에서 기도라도 하고 간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신 회장은 선불사 창건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신 회장은 사업 실패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옆친 데 달친 격으로 부인까지 이름 모를 병으로 몸져누웠다. 신 회장을 방황했고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이진부터 인연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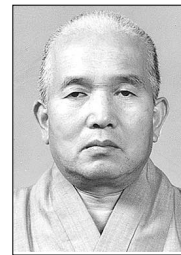
교의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어떤 종교라도 가지면 삶이 윤택해진다고 충고할 뿐이다. 선불사를 찾은 신 회장은 주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의 말을 좇으며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결국 부인의 병은 완치됐다. 그 후부터 신 회장은 '선불사맨'이 됐다. 15년 전부터 신도회장을 맡은 신 회장은 7년 전 요사채 공사 할 때는 3개월 동안 매일 절에 '출근'하면서 일일이 공사를 지도·감독했다. 내 절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젊은 시절 몸으로 부딪치며 배웠던 것들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영원한 선불사맨'

내 절이라는 신념으로 출근하며 불사 지도

있던 장모님의 손에 이끌려 선불사를 찾았다. 원래 신 회장은 개인교 신자였다. 젊은 시절 감리교, 장로교, 통일교 등을 전전하며 구원을 받으려고도 했다. 그러나 피 끓는 젊음은 그를 목실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자신의 젊음과 능력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그 덕에 신 회장은 아직도 개인교 목사들과 친분이 깊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종

도어 때 많은 도움이 됐다. 신 회장은 사회 회향의 방편으로 오산중·고등학교와 오산대학교 육성회장직을 역임했다. 또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 창립위원으로도 참가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니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는 신회장은 "지금 현재로도 만족합니다. 신도들을 위해 주지 스님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대운스님 선불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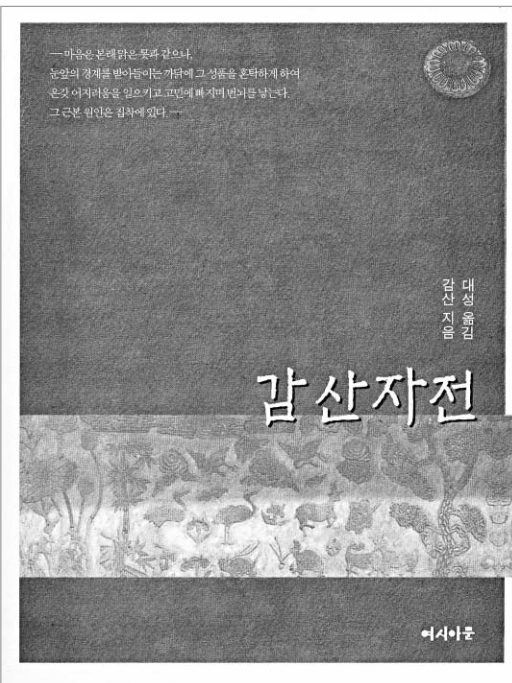
추천의말

신 회장은 신심이 강할 뿐 아니라 절일을 자기집처럼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합니다. 절을 처음 찾은 사람은 신 회장을 사무장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누구보다 강한 절 사랑 보여

니다. 신도관리부터 종무행정까지 신 회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사채 불사에서도 보여줬듯 신 회장의 마음 씀씀이는 제 그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신 회장은 선불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신 회장 역시 늘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 感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주생사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 傳記라기보다는 年 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할 것인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유진이 대성(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 관련 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 (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